

아동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성인기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Child-Father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Adulthood on Adult Students' School Adjustment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복지학과

조교수 이 사 라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조교수 이 주 연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Educare, Sejong Cyber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arah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oo-Yeon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attachment across an individual's lifespan.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father attachment in childhood influences adult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explor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those two variables. Five hundred and twenty-nine adult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S Cyber University were participants in this study. Subjects' ages ranged from 20-59. They were issued with a questionnaire addressing their present self-esteem level, attachment toward their father in childhood,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from SEM analysis indicated that adult students' self-esteem completely mediated between their attachment to their father in childhood and their school adjustment in adulthood. This result shows that a secure attachment to a father in childhood is related to child's own internal working model, and that positive self-esteem is related to social interactions including school adjustment.

주제어(Key Words) : 애착(attachment), 생애지향적 관점(lifespan perspective), 자아존중감(self-esteem),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I. 서론

개인은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하며 발달해간다. 이러한 발달은 영유아기나 아동기, 청소년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노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 생애를 거쳐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는 생애지향적 관점(lifespan view)은 한 개인의 사회정서적 측면의 발달을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관점은 생애초기 애착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청소년기, 성인기 발달로 그 영역을 확대시켜 주었다. 생애초기 주양육자와 맺은 애착은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후 다른 사람들과 맺게 되는 관계에 영향을 준다. Bowlby(1977, 1980)는 애착을 인간이 특정한 타인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는 성향으로 정의하면서, 영아기에 주양육자와 형성한 애착관계가 훗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내적작업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Bowlby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사회적 맥락에 있는 중요한 타인들에 대해, 그리고 자아에 대해 발달하는 내적 표상을 묘사하기 위해 내적작업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내적작업모델은 생애 초기 영아와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영아의 행동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피드백 등의 경험으로부터 발달하게 된다. 이는 애착과 관련된 경험, 감정, 사고를 조직하는 인지구조로서 초기 애착관계의 유형을 토대로 자아와 세상에 대해 형성되는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 생애초기에 주요 애착대상과 형성한 강한 유대관계는 이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으로 작용하게 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된다는 것이다(Ainsworth, 1991; Bowlby, 1980). 이러한 설명은 애착의 전생애적 발달이 체계적으로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되고 있다. 즉, 영아기의 애착이 아동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Cohn, 1990; Park & Yoo, 1997; Wartner, Grossman, Fremmer-Bombik, & Suess, 1994)과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Baik, 2000; Emmanuelle, 2009; Kang & Choi, 2001)은 애착의 지속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안정된 애착 형성에 대한 이후 영향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버지·어머니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성장한 이후에도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었고, 자아존중감이나 또래관계, 대학생활에서도 적응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Bribgle & Bagby, 1992; Hiestler, Nordstorm, & Swenson, 2009; Levy, Blatt, & Shaver, 1996).

이렇듯 전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내적작업모델은 한 개인

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환경과 접하며, 앞으로의 발달단계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해결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롭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성인기의 경우에도 생애초기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성인 초기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준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성인들은 직업을 결정하는데 보다 분명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Emmanuelle, 2009), 보다 높은 사회적 능력감을 가지며(Rice, Cunningham, & Young, 1997), 진로탐색에 높은 자아효능감을 보였다(Ryan, Solbert, & Brown, 1996).

한편, 성인기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양적인 방법으로 성인애착연구에서 내적작업모델을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모델차원의 측면에서는 자아와 관련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서의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의 피드백과 자신의 이전 성취경험에 의해 형성되는데,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지각하는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반응하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Rosenberg, 1965).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Bucx & Seiffge, 2010; Lee & Hankin, 2009)들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에 대한 애착의 안정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McCormick & Kennedy, 1994)는 애착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준다.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다양한 영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적모델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여러 연구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학급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는 경향이 있다(Kim, Kim, Lee, Jung, & Jung, 2004). 최근, 라틴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Smokowski, Buchanan, & Bacallao, 2009), 미국문화에 잘 적응하고 정신적인 문제의 위험요소가 적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라틴계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임을 시사한다.

한편, 애착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예측변인

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Lee & Park, 2005;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Stephane, Catherine, Caroline, & Evelyne, 2009; Vivona, 2000).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인 면에서, 학업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적응면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애착으로 지각한 개인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즉, 안정애착은 앞서 살펴본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매우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애착유형의 개인들은 낯선 또래나 타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며, 문제해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적응을 잘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상황에서의 적응 또한 무리 없이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와의 애착에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성인기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 또한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존 연구들은 아동기 애착의 영향력을 연구함에 있어 대개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에 그 초점을 두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Stephane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표상이 성인기의 자아존중감과 성인기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때 아버지와의 애착과 성인기 대학생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연구들(Emmanuelle, 2009; Nam & Park, 2009)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애착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아버지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애착경험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초기의 연구대상들만을 포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 애착의 이후 영향력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고자 한다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다양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발달과업 상의 특징으로서의 학교생활적응이 아니라 보편적 발달과업에서 벗어난 특이한 경험으로서의 새로운 환경 및 상황에 대한 적응에서의 애착영향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예로, S사이버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재학생 평균 연령은 30-40대가 64%로 가장 많고, 기혼인 경우가 50%이

상이며,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70%이상으로 나타났다(Sejong Cyber University, 2009). 이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에서의 대학생활적응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령의 증가에 따라 대학교에 입학하는 순차적인 학교생활진입은 보편적인 발달과업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성인중기나 후기의 발달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성인초기에 경험하는 대학생활을 다시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 및 상황에 대한 적응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영향이 미치는 시점을 성인기 전체로 확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의 연구대상이 아닌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즉, 성인들이 대학생활이라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거 아버지와의 애착경험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전자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지식의 확산과 정보전달이 이전세대와는 달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는 방대한 양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는 학습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평생교육 및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이버대학이 출현하게 되었다. 사이버대학은 개인적인 이유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이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자기 역량강화 및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업을 고려하여 새로운 자격증과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사이버대학이 출범한 이후 2010년도에 설립인가가 확정된 3개의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현재 4개의 대학원과 17개의 4년제 대학 및 2개의 전문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입학정원도 2001년 9개교 6,220명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총 19개교의 학사 57,233명과 전문학사 3,599명에 이르게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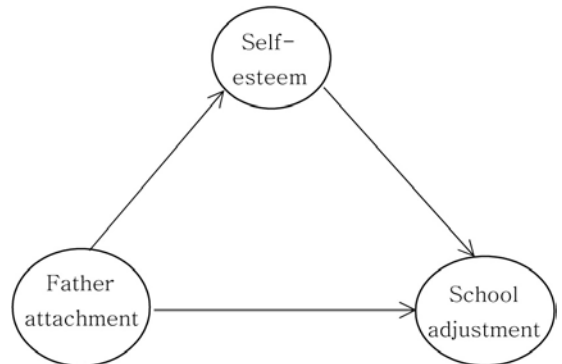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Human Resources, 2010).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에 관한 연구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 및 직업 배경을 가진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과거 애착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애착 영향력의 전생애적 관점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이버대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기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성인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표집은 S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¹⁾. 2008년 1학기 사회복지관련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84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무응답 및 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133명을 제외한 529명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37.4세였으며, 직업은 회사원 또는 교사(26%), 무직 또는 주부(20%), 기타(20%), 일반사무직(12%) 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결혼을 한 경우가 63%로 미혼의 경우보다(31.6%)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연령층이 높고 직장인들이 많아 일반대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애착

아동기 부모-자녀에 대한 내적표상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2000년(제32차)에 만 26세의 중단연구 대상자들에게 응답하게 한 아동기 아버지의 양육유형에 대한 회고식 6문항을 사용하였다(Hazan & Shaver, 1987). 각 문항은 아버지의 따뜻한/반응적 양육유형, 냉담한/거부적 양육유형, 양가적/비일관적 양육유형을 나타낸다. 연구대상자들은 과거 아동기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았다”에서 “매우 그랬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에 해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N = 529)

Variable	Frequency(%)
Sex	
Male	170(32.1)
Female	359(67.9)
Age	
20's	128(24.2)
30's	191(36.1)
40's	150(28.4)
50's	56(10.6)
Monthly income	
Below 1,000,000	26(4.7)
1,000,000~2,000,000	156(28.3)
2,000,000~3,000,000	107(19.4)
3,000,000~4,000,000	102(18.5)
4,000,000~5,000,000	75(13.6)
Over 5,000,000	85(15.4)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167(31.6)
Married	335(63.3)
Divorced	20(3.8)
Job	
Unemployed/Homemaker	110(20)
Laborer/Service-job worker	36(6.5)
Self-employed person	30(5.4)
Office worker	68(12.3)
White color /Teacher	144(26.1)
Professionals	30(5.4)
High-ranking officer	18(3.3)
Others	112(20.3)

Not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as variables due to missing data.

당되는 아버지의 양육유형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용은, “아버지는 대체로 나에게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셨다.”, “아버지는 차갑고 멀게 느껴졌고, 나를 거부하셨고, 내가 바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대한 반응이 매우 비일관적이었다.” 이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아버지에 대한 내적표상 척도는 .79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성인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Banpo Multi-Social Service Center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actice Social Welfare Studies, 2007)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척도로 볼 수 있다. 문항내용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

1) 본 연구는 S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수행된 action research의 일부자료를 사용함.

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등,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되었다. 응답방법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요인분석결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분석결과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요인은 .78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요인은 .70으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Kim(2006)이 사용한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문지’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적·정서적 적응, 학교소속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교수와 학생들 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본다. 질문지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을 6가지 하위영역(교우관계, 교수와의 관계, 학교환경, 학업관계, 학교 친애감, 학교 행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Kim(2006)의 척도 중 요인부하량과 요인구성에 문제가 있는 13문항과 기존 요인 중 ‘교우관계’와 ‘학교행정’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와의 관계, 학교환경, 학업관계, 학교 친애감의 4요인, 14문항이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 사이버대학은 교우관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프라인 상의 학교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우관계나 일반 학교의 행정관련 질문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 내용과 신뢰도를 살펴보면, 교수와의 관계요인은 “나는 교수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등 교수와의 친밀한 관계나 교수에 대한 감정을 질문한 것으로 총 3문항이고 신뢰도는 .74이다. 학교환경요인은 “우리 학교의 각종시설(예: 학사 시스템, 학습 킷츠 등)이 불충분하다” 등의 질문으로 자신이 속한 학교의 분위기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총 4문항이고 신뢰도는 .74이다. 학업관계요인은 “나는 온라인 강의실 내에서 질문과 글을 많이 올리는 편이다” 등 온라인 학습에 대한 흥미와 오프라인 모임의 참여도에 관한 내용으로 총 4문항으로 신뢰도는 .62이다. 학교친애감요인은 “좀 더 좋은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등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애정에 대한 내용으로 총 3문항이며 신뢰

도는 .68이다.

3.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S사이버대학교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학부에 개설된 과목들 중 전임교수과목(9과목) 강의실에 설문지를 업로드 해놓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과목수강 중에 설문지를 다운받아 응답하게 한 후 전체 응답한 설문지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코딩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 기술통계 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6.0 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각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경로를 검증하였고, 척도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은 2개 요인으로, 학교적응은 총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분석 후에는 각 변인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집크기에 영향을 받는 χ^2 값(Hong, 2000) 표본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된 정도를 나타내주는 RMSEA, TLI, CFI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인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에 앞서, 경로모형에서 잠재변수들이 측정변수들을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측정모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모형을 구성하여 적합도를 검증하고 요인부하량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뒤에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잠재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를 확인한 후, 각 잠재변수를 연구모형에 따라 서로 연결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아버지 애착과 대학생 자아존중감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측정모형 분석

아버지 애착,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구성개념들에 대한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

Table 2.
Factor loadings of observed model (N = 529)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β	S.E.	C.R.	p
Father attachment	Father attachment 1	1	.731	-	-	-
	Father attachment 2	.928	.792	.064	14.414	***
	Father attachment 3	1.038	.753	.073	14.309	***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1	.651	-	-	-
	Negative self-esteem	1.290	.785	.241	5.363	***
School adjustment	Relation w/ professor	1	.691	-	-	-
	School environment	1.132	.830	.101	11.188	***
	Schoolwork	.416	.327	.063	6.583	***
	Love of one's school	.900	.536	.088	10.226	***

Note. 'Peer relation' was deleted.
****p* < .001.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3보다 낮게 나타난 교우관계($\beta = .14$)는 제거하였으며²⁾, 모형을 수정³⁾한 결과, $\chi^2 = 77.168(df = 23)$, *GFI* = .969, *TLI* = .929, *CFI* = .954, *RMSEA* = .067(90%의 신뢰구간: .051-.084)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Hong, 2000). 또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변수들의 C.R.(Critical Ratio)값이 *p* < .001 수준 이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β)의 경우, 본 측정모형에서는 모든 β 값의 절대값이 .327-.830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구성요소를 잘 반영하였다(Kim, 2007)(Table 2).

한편,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했다(Table 3). 즉, 아버지 애착이 높을 때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r = .21,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대학생이 지각하는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높았다($r = .25, p <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latent variables (N = 529)

Latent variable	1	2	3
1. Father attachment	-		
2. Self-esteem	.21***	-	
3. School adjustment	.06	.25***	-

****p* < .001.

2. 구조모형 분석: 아버지 애착 및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아버지 애착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각각 $\chi^2 = 77.168(df = 23)$, *GFI* = .969, *TLI* = .929, *CFI* = .954, *RMSEA* = .067(90%의 신뢰구간: .051-.084)로 나타나,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4).

Table 4.
Fit Index of observed model

χ^2	df	p	GFI	TLI	C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
77.168	23	.000	.969	.929	.954	.067(.051-.084)

이어서, 구조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5). 즉, 아버지 애착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eta = .273, p < .001$), 아버지 애착이

Table 5.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N = 529)

	B	β	S.E.	C.R.	p
Father attachment → Self-esteem	.084	.273	.021	4.076	.000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413	.254	.106	3.890	.000
Father attachment → School adjustment	-.003	-.006	.029	-.098	.922

2)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5를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수와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요인부하량 고려 수준은 낮추어져야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350명 이상일 경우 요인부하량은 .3을 기준으로 한다(Kim, 2007).

3) 수정 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13.629(df = 24)$, *GFI* = .952, *TLI* = .887, *CFI* = .925, *RMSEA* = .084(90%의 신뢰구간: .069-.100)으로 나타나, *TLI* 및 *RMSEA* 값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ex)를 고려하여 긍정적 자아 측정변수 오차항과 학업관계 측정변수 오차항에 공분산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Table 6.
Total effects and effect decomposition (N = 529)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Father attachment → Self-esteem	.273*	-	.273*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254*	-	.254*
Father attachment → School adjustment	-.006	.069*	.064

* $p < .05$.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eta = .254, p < .00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 높았다. 아버지 애착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06, p > .05$).

한편,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Table 6), 아버지의 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9,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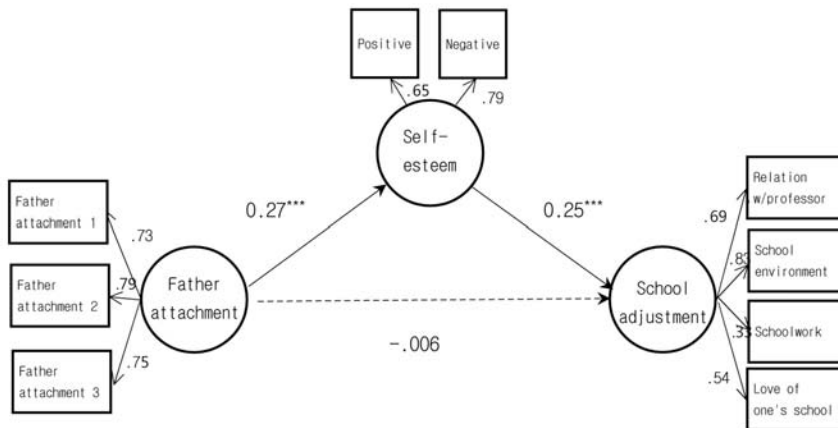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기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어릴 적 부모와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표상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529명의 성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 생애적 관점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의 적응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예측할 수 있었다. 청소년 후기 및 성인기 적응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과 건강한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Harter, 1990, 1996), 사회생활을 지속해오다가 다시 대학생활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아버지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애착의 연속성을 밝혀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내적표상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이론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고 있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의 애착에 대한 내적표상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Armsden & Greenberg, 1987; Rice et al., 1997)을 바탕으로, 애착대상인 부모에 대한 내적작업모델과 자기자신에 대



Note. Measurement errors were omitted.

*** $p < .001$.

Figure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adult students' school adjustment.

한 내적작업모델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적이고 애정적인 모습으로 일관되게 대했다면 부모에 대한 내적작업모델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자신도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내적작업모델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80). 이러한 과정은 아버지와 안정애착을 경험한 성인들이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작업모델을 형성하도록 돕고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갈등적 상황에서 높은 문제해결능력을 보이고 이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에 적응적이 될 수 있다는 연구와(Buck & Seiffge, 2010), 아버지,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Hiester et al., 2009)와 일치하였고 자아존중감과 학업 또는 학교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Do, 2008; Lee & Park, 2005)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아버지와의 애착은 직접적으로 성인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Deborah & Gustavo, 2004; Kim & Yoo, 2002; Yoon & Chung, 2000)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간접 변수임이 지적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아버지와의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매개하여 그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었다.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보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활적응에 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아존중감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편, 아버지와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표상,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적응의 관계를 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 각 하위 변인 간 많은 변인들 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Nam & Park, 2009; Smokowski et al., 2009)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인기에서도 어릴 적 아버지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성인기시기의 자아존중감과 성인들이 다시 대학생활로 전환할 때 적응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성인기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성인

기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성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성인기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아버지와 애착관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또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모든 변인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관계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와 애착관계에 대해 회고식 질문을 통해 응답하게 하였으므로 그 응답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나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좀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이버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아버지와 애착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성인기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이전시기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졌던 우리나라 애착연구를 성인기로 연장시켜 성인이 되어 다시 대학생활을 시작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내적표상이 자아존중감과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내적표상과 대학적응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여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밝혀냄으로써 전 생애적인 관점에 기초한 애착이론을 실증적으로 지지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insworth, M. D. S. (1991). Attachment and other affectional bonds across the life cycl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New York, NY: Routledge.
- Baik, J-S. (2000). Attachment to paren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1), 127-137.
- Banpo Multi-Social Service Center,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actice Social Welfare Studies. (2007). *Social welfare scale for practitioner and researcher*. Seoul: Sharing House.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

-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 Bringle, R. G., & Bagby, G. J. (1992). Self-esteem and perceived quality of romantic and family relationships in young adul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340-356.
- Buck, F., & Seiffge, K. (2010). Romantic relationships in Intra-ethnic adolescent couples in Germany: The role of attachment to parents, self-esteem,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2), 128-135.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6-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Deborah, L., & Gustavo, C. (2004).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support and control to adolescent social competence, self-worth, and sympath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6), 759-782.
- Do, K-H. (2008). A study of father 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5), 861-872.
- Emmanuelle, V. (2009). Inter-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self-esteem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91-99.
- Harter, S. (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ian (Eds.), *Competence considered* (pp. 67-9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96). Historical roots of contemporary issues involving self-concept. In B. A. Bracken (Ed.), *Handbook of self-concept: Developmental, social, and clinical considerations* (pp. 1-37). New York: Wiley.
- Hazan, C., & Shaver, P. R.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iester, M., Nordstrom, A., & Swenson, L. (2009). Stability and change in parental attachment and adjustment outcomes during the first semester transi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0(5), 521-538.
- Hong, S-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8.
- Kang, J-K., & Choi, H-K. (2001). Mental representations of parents in childhood, self-model in adolescence, and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3), 1-24.
- Kim, C-H. (2006). How sense of self-identity and self-defence mechanisms affect college students and catholic seminarians in adjusting themselves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D-I., Kim S-H., Lee G-J., Jung I-H., & Jung J-J. (2004). Child Development and Learning. Seoul: Education Publication.
- Kim, E-K., & Yoo, G-H.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the fathers' attitudes of child rearing.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5(1), 33-43.
- Kim, G-S. (2007). Amos 16.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Korea: Hannarae.
- Lapsley, D. K., Rice, K. G., & Fit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Lee, A., & Hankin, B. (2009). Insecure attachment,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predicting prospective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8(2),

- 219-231.
- Lee, S-R., & Park, H-W. (2005). The influence of attachment with mother on self-concept,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Korean-Chinese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9), 109-127.
- Levy, K. N., Blatt, S. J., & Shaver, P. R. (1996). Style of romantic attachment and parental representation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18.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2010). 2010 comprehensive evaluation report on cyber university.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 Nam, Y-J., & Park, T-Y.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4), 47-71.
- Park, U-I., & Yoo, M-H. (1997). The stabi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mother attachment across 3 year period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8(2), 33-46.
- Rice, K. G., Cunningham, T. J., & Young, M. B.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89-101.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73, 463-47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 Ryan, N. E., Solbert,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84-89.
- Sejong Cyber University. (2009). Sejong Cyber University self-evaluation report. Seoul: Sejong Cyber University Press.
- Smokowski, P., Buchanan, R., Bacallao, M. (2009).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in Latino Adolescents: How cultural risk factors and assets influence multiple domains of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0(3), 371-393.
- Stephane, D., Catherine F., Caroline, S., & Evelyne, D. (2009). Early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emotional problems, and teacher-academic worries about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5), 743-766.
- Vivona, J. (2000). Parental attachment styles of late adolescents: Qualiti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consequences for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7, 316-329.
- Wartner, U. G., Grossman, K., Fremmer-Bombik, E., & Suess, G. (1994). Attachment patterns at age six in south Germany: Predictability from infancy and implications for pre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1014-1027.
- Yoon, S-Y., & Chung, O-B.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Child Studies*, 20(2), 101-123.

접 수 일 : 2011년 10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월 15일